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수기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나름의 가치 기준을 키우다
11기 선진화홍보대사 이미연(충신대학교 영어교육학)

한국선진화포럼과의 첫 만남

배움과 경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저명한 대학교수님 그리고 사회명사와의 다이얼로그에 참석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혜택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지식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지원하고자 할 때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배우고 싶고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진화 홍보대사가 하는 일

방학기간동안은 주 2회 대화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회 현안을 던져주시며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들이 생각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십니다. 또, 사회명사님이 일하고 계신 곳을 직접방문해서 우리들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회 명사님들이 바라보고 경험하시는 생생한 사회현장 이야기와 그분들의 20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나의 발전을 위해 20대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죠.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매달 월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원로, 대학교수, 그리고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아주 뜻깊은 장입니다! 홍보대사들은 대화시리즈와 월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긴 글을 SNS를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 동료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갖게 되요! 홍보대사들끼리 팀을 이루어 캠퍼스 내에 선진화 메시지를 전하는 캠퍼스 메신저의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즐겁고 뿌듯한 활동입니다!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께

제가 홍보대사를 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나름의 가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감정적,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제가 좀 더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대화시리즈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요, 나의 생각이 담긴 글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의 기쁨을 여러분께서도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고민하는 교수님, 동료들과의 지적교류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배우다
11기 선진화홍보대사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홍보대사 활동의 시작

제가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를 지원했을 때는 한국일보에서 인턴기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집 마감 2시간 전 소식을 접하고 고민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기수가 활동하며 쓴 글들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사회유명 인사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재계의 유명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 사회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스티브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전재산과 바꾸고 싶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만큼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게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감성의 시대에 의문을 품다

저는 경영, 경제 비 전공자로서 특정 사회현안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기간 동안 한국선진화포럼의 이사님들로부터 들은 강의는 저를 더욱 강한 논리력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러한 테크닉들을 배우면서 경영, 경제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 논리력이 향상됨을 경험했습니다. 작문과 논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활동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성에 이성을 끼워 넣다

흔히들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대외활동이 이러한 '감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춘의 꿈을 앓고 여행지나 오지로 떠나거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만의 감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감성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칼럼을 쓰기 위해선 2번, 3번 논리적으로 자신의 글을 반박해봐야 하며 많은 대학생들이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문제 등에 의구심을 품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감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성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친구에게 이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정치적, 경제적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칼럼을 통해 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감성에 이성을 끼워 넣음으로써 지적 능력이 성숙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시 찾은 대한민국, 그 의미있던 시간들

11기 선진화홍보대사 문지선(Pennsylvania State Univeristy 경영학)

2012년 가을, 휴학으로 다시 찾은 대한민국은 한창 18대 대통령선거로 시끌벅적 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투표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대통령들의 공약을 보아도 아리송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생살로 나라사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이슈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한국선진화포럼은 여러가지 사회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풀이해주었고 학생들 나름의 솔루션을 내놓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멋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워' 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지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유장희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대한민국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선진화포럼을 통해 텅 비어있던 창고가 꼭 찬 기분이라서 무척 기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하는 뉴스도 더 쉽고 흥미롭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하는 시각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홍보대사활동을 하며 친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전공에 따라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저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NGL클럽을 통해서 지난 기수 홍보대사님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12기 선진화홍보대사 김재희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영어학)

홍보대사 활동 후기에 보면 늘 있는 뻔한 말이 있죠, '얻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뻔한 말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뿌린 씨앗 같은 지원서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된 것이죠.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 활동하는 선진화홍보대사들도 그렇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걸 또 어디서 해보겠어' 진짜 말 그대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곳도 많이 가보고, 해보지 못하는 것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방학동안 선진화홍보대사로 갔던 대부분의 곳들이 제가 처음 가본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자주 쓰고 첨삭 받는 활동을 통해서 글 쓰는 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진화다이얼로그나 사회명사와의 대화, 월레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매체를 통해서나 뵈만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으니 정말 큰 복이었죠. 다들 배울 점이 참 많은 분들이었고, 그 분들 덕에 홍보대사 활동이 백배는 더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작은 씨앗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싶은 분들! 어서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화홍보대사에 지원하세요!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12기 선진화 홍보대사 김광래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

한국선진화포럼을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생들과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제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나 행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을 하기 전에는 교내 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지적 논의한 주제를 토대로, 선진화연구모임을 교내 캠퍼스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대학생 시각을 배우고 친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대외활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홍보대사 활동은 제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분들 그리고 대외활동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활동을 통해 많은 지적 교류를 하고,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키워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12기 선진화홍보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경영학)

처음에 한국선진화포럼이라는 단체의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 명사들, 저명한 대학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매달 열리는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적 교류를 하다보니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해 대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선진의식을 알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는 선진화기수가 되어 활동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로 글을 전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

선진화홍보대사 12기 오기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은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 활동이었습니다. 방학 8주간 진행되는 각종 선진화 다이얼로그, 사회명사와의 대화,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월례토론회 등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로 글을 전개하고 포럼 홈페이지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폭과 자신만의 생각 논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귀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